

소니코리아

6,100만 화소 풀프레임 카메라 ‘Alpha 7R IV’ 리비전 모델 출시

소니코리아는 세계 최초 6,100만 화소로 중형 카메라급의 초고화소 해상력을 자랑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lpha 7R IV (이하 A7R IV)’의 리비전(revision) 모델을 지난 5월 출시했다.



A7R IV 리비전 모델은 기존 144만 도트의 LCD에서 235만 도트의 LCD로 업그레이드 탑재했다. 이를 통해 라이브 뷰 및 결과물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7R IV는 6,100만 화소의 이면조사형 35mm 풀프레임 엑스모어(Exmor) R CMOS 센서와 향상된 비온즈 X(BIONZ X) 이미지 프로세싱을 장착한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다. 최상의 해상력을 유지하면서 초당 최대 10연사(AF/AE)의 촬영 속도를 구현하고, AI 기반 ‘리얼타임 트래킹’, ‘리얼타임 인물 및 동물 Eye-AF’ 기능을 제공한다. 무선 테더링 촬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급 워크플로우로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HDR을 지원하는 고해상도 4K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픽셀 시프트 멀티 촬영으로 16개의 이미지를 합성 촬영하여 2.4억 화소의 이미지까지 생성 가능하다.

A7R IV 리비전 모델의 소니스토어 판매가는 3,980,000원으로, 5월 13일(목)부터 소니코리아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점을 통해 판매가 시작되었다. A7R IV 리비전 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니코리아 알파 홈페이지(www.sony.co.kr/alpha) 및 소니스토어 온라인 홈페이지(store.sony.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ARRI

아시아에서 ARRIse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청 제안

- ARRIse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영화 제작자들에게 기회 제공
-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ARRI 카메라와 조명 시스템 세트를 무료로 사용
-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2021년 5월 17일부터 지원서 접수



ARRI는 국제 지원 프로그램(ISP)의 연장선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및 독립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ARRI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ARRIse(ARRI Support and Education)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지역 영화 제작자들이 독특한 주제, 예술적 장점,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가진 영화 피칭을 제출하도록 장려하며, 장편과 단편 영화를 혼합한 선별된 프로젝트에는 촬영 기간 동안 카메라와 렌즈,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시스템 등 ARRI 장비 세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RRIse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영화제작자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17일부터 출품작 접수를 시작했으며, 아시아 영화 및 TV 산업의 부양을 위해 향후 몇 년간 프로젝트 선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선별된 국가 또는 선별된 도시의 시민인 경우 가능하며, 지원자는 2명의 감독, 제작자 또는 영화 제작자 등 프로젝트에서 주요 창작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영화는 자막과 함께 영어 또는 영어가 아닌 모든 장르에 걸쳐 서술형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능하다.

전체 프로그램 세부 정보,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및 양식과 제출 지침은 ARRIse 웹 페이지(www.arri.com/en/company/about-arri/supporting-talents/arri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텐코리아

3-포트 USB-C DisplayPort 하이브리드 KVMP 스위치 CS1953

- 최대 PC 3대 원격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KVM 스위치
-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전송 및 USB-C 기반 4K 해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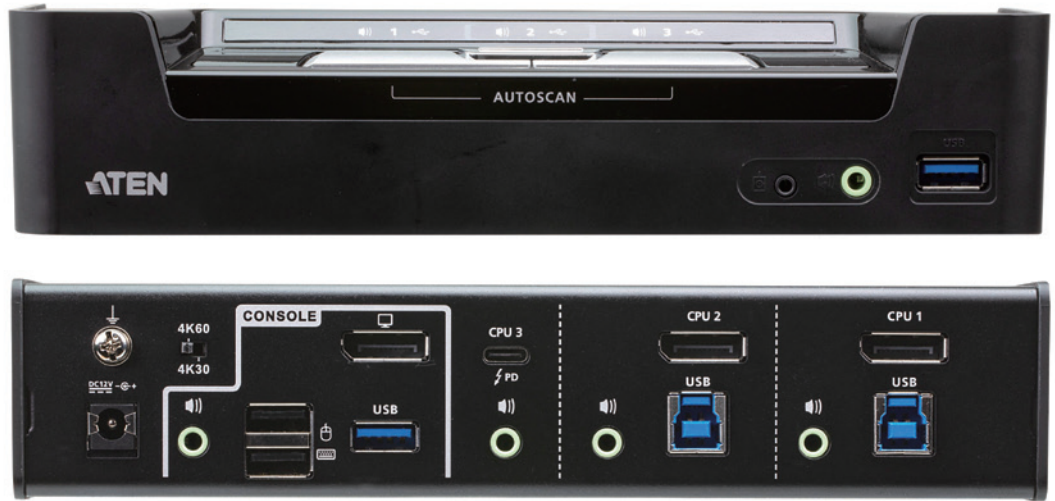


KVM 스위치 및 디지털 영상 솔루션 분야에서 에이텐은 한발 먼저 시장의 니즈의 부합한 제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에도 에이텐코리아는 지금까지 등장한 KVM 스위치의 호환성을 한 단계 높여 가장 진화한 형태의 KVM 스위치 신제품 CS1953을 새롭게 선보인다.

사무나 전산 환경에서 작업 속도 향상 및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업무 환경이 가정으로 옮겨지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이유로 두 대 이상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과거라면 관제실 혹은 전산실과 같이 특수한 환경과 흡사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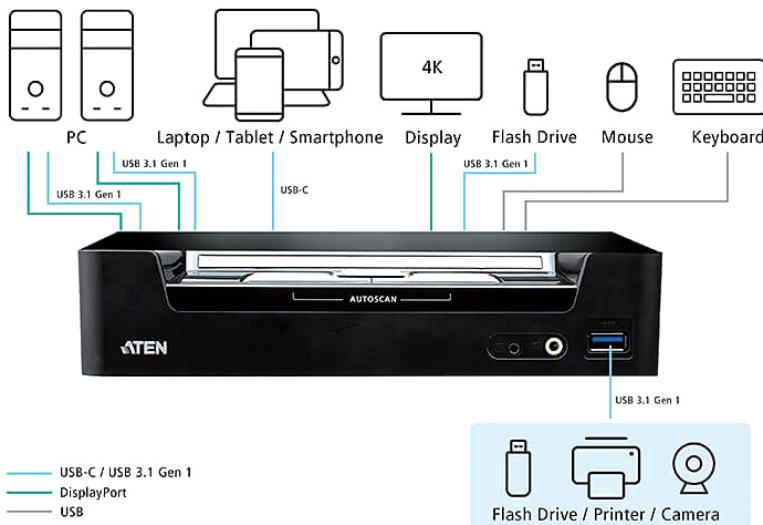
KVM 스위치는 이들 환경에서 조작 편의를 높이는 필수 장비로 쓰였다. PC나 워크스테이션 같은 단말기는 한 대당 1대의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가 있어야 조작할 수 있으나, KVM을 통하면 여러 대의 단말기를 단 1대의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다. 비용 절감에 공간효율까지 높여주는 효과는 덤이다. 하지만 최근의 PC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디스플레이 포트나 USB-C를 범용으로 도입한 노트북도 등장하면서 KVM 스위치도 관련 시장에 대응한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

CS1953은 에이텐이 최초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KVM 스위치로서 이전 버전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KVM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형태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고 USB Power Delivery 3.0 조건을 충족하는 USB Type-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노트북과 연결 시 모바일 장비 충전 기능까지 가능하며, 현장에서는 복잡한 케이블의 번거로움을 줄인 단일 USB-C 케이블로 여유로운 작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ATEN 3포트 USB-C DisplayPort 하이브리드 KVM CS1953

KVM 기술력 글로벌 시장 1위 브랜드다운 기본기뿐만 아니라, 호환성과 기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최신 제품까지 대응한 설계로 별도의 젠더나 변환 장비 없이 연결할 수 있다. 특히 ▶ 1개의 USB 키보드, 마우스, DisplayPort 모니터로 2개의 DisplayPort 컴퓨터와 1개의 USB-C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는 노트북과 같은 장치를 제어하고 2개의 USB에 연결한 외장하드나 USB 혹은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를 공유할 수 있다. ▶ 최대 4K DCI (4096×2160@60Hz)해상도 비디오 품질로 데이터 지표 모니터링이 필요한 금융 환경 혹은 정밀한 그래픽 디자인 작업도 구현에 문제없다.



▶ 에이텐 KVM 스위치만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빠른 화면 전환은 푸시 버튼, 핫키, 마우스2, 원격 포트 선택기를 통해 손쉽게 이뤄지는 점도 에이텐 장비의 강점이다. 이 외에도 ▶ KVM, USB 주변기기, 오디오 사용 권한의 독립적인 전환 ▶ USB 연결로 DisplayPort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DisplayPort 대체 모드(DP Alt 모드) 지원 ▶ USB 포트를 통해 연결된 KVM 소스에 의해 버스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 DisplayPort 듀얼 모드 기술 (DP ++)을 지원해 DisplayPort의 신호를 HDMI 또는 DVI로 변환할 수 있고, USB-C 장비도 연결, 제어할 수 있어 유연한 작업 환경을 손쉽게 구현한다.

CS1953은 오피스, 금융, 그래픽디자인, 헬스케어 등의 데스크톱을 통한 빠른 속도의 작업 또는 데이터 집약적인 작업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KVM 스위치로서 컴퓨팅 파워가 핵심인 작업 환경에서 KVM 스위치는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호환성과 안정된 동작 그리고 빠른 전환을 통해 업무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모든 ATEN 제품은 3년 동안 보증되며, 장애 발생 시 동일 제품으로 선교체 하는 A+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및 무료 체험 서비스 등 ATEN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공식 홈페이지 www.aten.com/kr/ko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온라인 교육 솔루션이나 제품문의는 02-467-6789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Matrox

벨기에 VRT 방송국, Monarch EDGE로 경제적인 원격 방송(Remote Production) 구현



좋은 악기가 없이 훌륭한 뮤지컬이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 Monarch EDGE가 없는 고화질 원격 방송은 상상할 수 없었다. Matrox Monarch EDGE는 벨기에 VRT(Flemish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Organization) 방송국의 콘서트 실황 원격 방송을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생방송을 재정의하다

다른 나라의 방송국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VRT 방송국은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대체 방송 환경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다양한 원격 방송 테스트를 하게 되었으며 방송급 고화질(High-quality)과 저지연(Low-latency)을 만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으로서 Matrox Monarch EDGE를 선택하게 되었다.

Monarch EDGE 인코더/디코더는 저지연과 고화질은 물론 일반 네트워크망에서도 보안성을 갖춘 원격 솔루션으로서 VRT 스태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게 방송할 수 있는 역할도 톡톡히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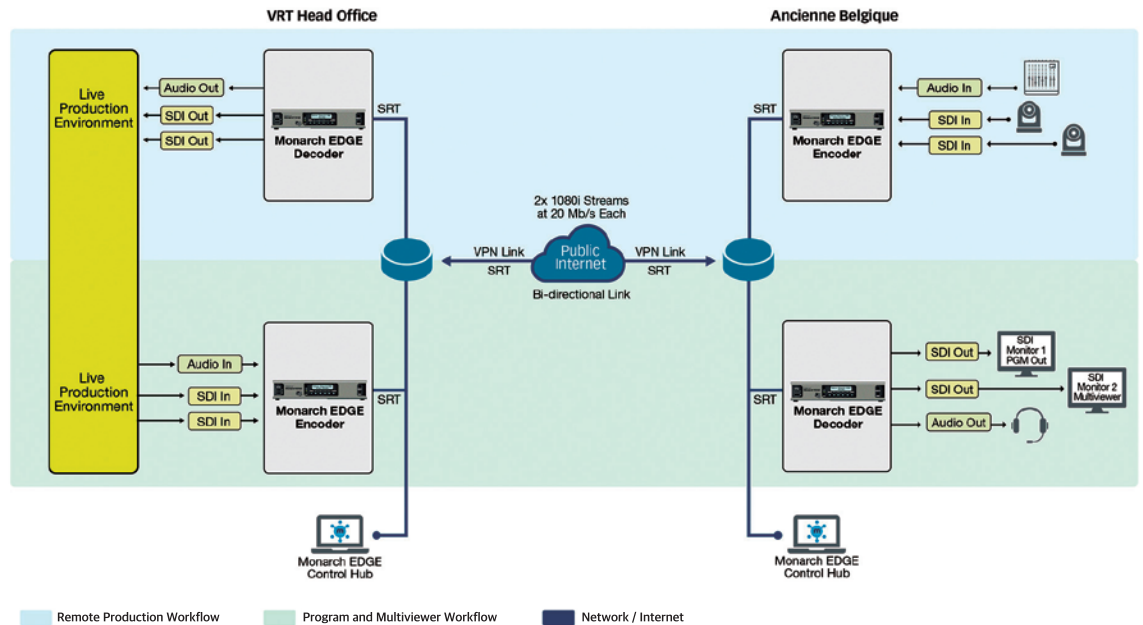
초간편 원격 방송

VRT 방송국은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성의 Ancienne Belgique 홀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 중계를 통해 Monarch EDGE를 최초로 사용했다. 콘서트홀에 배치된 2대의 카메라



Matrox Monarch EDGE 인코더와 디코더로 검증된 벨기에 VRT 방송국의 고화질 원격 방송

는 뮤지션과 밴드 전체를 각각 촬영하여 SDI 인터페이스로 Monarch EDGE 인코더에 연결되어 4:2:2 10bit로 인코딩되었고, 오디오 콘솔에서 믹싱된 음향은 Monarch EDGE 인코더의 Balanced Audio(XLR)로 입력되었다.



Ancienne Belgique 홀의 원격 방송 워크플로우

이렇게 입력된 신호는 1080i 20Mbps로 SR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일반 네트워크망을 통해 VRT 방송국 본사의 프로덕션 스튜디오로 보내지게 되며, 스튜디오에 설치된 Monarch EDGE 디코더에서는 도착한 신호를 컷 편집과 그래픽 작업을 거쳐 최종 출력본을 방송하게 된다.

프로덕션 스튜디오에는 Monarch EDGE 인코더가 1대 더 배치되어 있어 2개의 SDI 영상을 입력받게 되는데, 하나는 최종 프로그램(PGM) 영상 출력을 위한 채널이며, 다른 하나는 카메라 A와 B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멀티 프리뷰용 채널이다. 이제 이 영상은 동일한 1080i 20Mbps 포맷으로 다시 Ancienne Belgique 홀에 있는 Monarch EDGE 디코더로 전송되어 현장 스탭들은 최종 프로그램(PGM) 출력 영상과 무편집본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영상 전송

- 최대 2160@60 스트리밍 지원(12G-SDI)
- 4개의 3G-SDI 입력을 각 1080p@60 해상도 지원
- YouTube의 멀티카메라 이벤트 지원(다중 카메라 스트리밍)
- 입력당 독립적인 다중 CDN 스트리밍 지원
- H.264(Up to 5.2 Level) 기반의 하드웨어 인코더로 빠른 전송
- SRT, RTSP/RTP, RTMP, MPEG-2 TS 스트리밍 프로토콜 지원
- USB 3.0을 통해 H.264 MOV, MP4 녹화 지원

Matrox Monarch EDGE 주요 특징

VRT 방송국은 Ancienne Belgique 홀에서 구현한 원격 콘서트 방송을 통해 Monarch EDGE에 매료되었고, VRT의 제작혁신사업부 담당 Floris Daelemans 씨는 “Monarch EDGE 인코더와 디코더는 VRT 스탭들이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고품질 멀티채널 영상 전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었고 원격 방송에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Monarch EDGE는 보안성이 좋은 SRT 프로토콜 환경에서 초저지연(Ultra low latency)과 무손실 인코딩 퀄리티로 VRT 제작팀의 방송환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라고 극찬했다.

(주)베스코 에스아이

R&S 미디어서버 Venice의 Copy-while-Ingest 워크플로우 소개

이번 6월호에서는 Rohde & Schwarz 사의 다목적 고성능 고밀도 미디어서버인 Venice를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겠다.

국내 방송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80채널 멀티 레코딩(동기신호 없는 카메라 포함) 및 지방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인 프로그램을 서울 HQ에서 거의 실시간 편집작업을 가능케한 copy-while-Ingest 워크플로우

R&S VENICE만의 고유한 기능인 Copy-while-Ingest는 Venice의 로컬 스토리지에 영상을 레코딩하면서 동시에 외장 디스크(SSD, 스토리지 등)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및 공유 스토리지로 레코딩 중인 영상 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이다. 작년에 CJ ENM은 신규 예능방송에서 Venice의 Copy-while-Ingest 기능을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서울과 지방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을 HQ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해 제작프로세스에서 많은 이점을 경험했다. 여기에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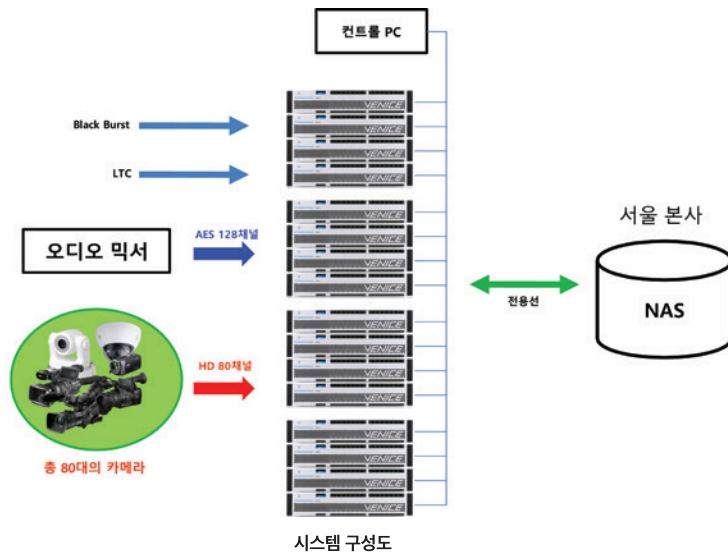
CJ ENM은 새로운 예능방송을 계획하면서 미디어 서버가 갖추어야 할 기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당사를 포함한 미디어서버 업체들에게 제안을 요청했다.

- 레코딩된 파일을 지방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서울에 있는 HQ까지 바로 copy 할 수 있어야 한다.
- 파일 copy는 레코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레코딩 완료 후 copy가 아닌 레코딩 중에 copy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동기신호가 없는 Camera를 포함하여 총 80대의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레코딩 할 수 있어야 한다.
- MXF와 ProRes 레코딩이 가능해야 한다.
- 레코딩 할 때 모든 영상의 Timecode가 동기화되어야 한다.
- 24x7 녹화를 3개월 연속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레코딩된 파일은 1시간 간격으로 자동 분할되어야 한다.
- 오디오 콘솔로부터 AES 오디오 128채널 입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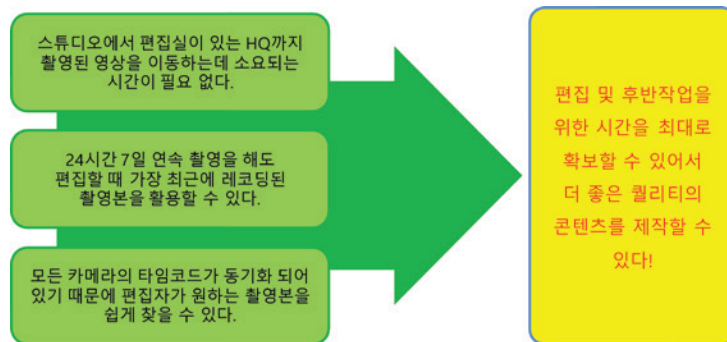
고객은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디어서버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서버를 대상으로 BMT를 했으며, R&S Venice는 위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유일한 미디어서버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고객이 스트리밍이나 동시 녹화(Dual destination recording)가 아닌 Copy-while-Ingest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스트리밍이나 동시 녹화는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특히 네트워크 대역폭이 아주 잠시라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 이하로 낮아질 경우, 프레임 손실이 발생하거나 블록 노이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Copy-while-Ingest는 이미 검증된 로컬스토리지에 정상적으로 레코딩되고 있는 영상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가 좀 불안정하고 대역폭이 낮아지더라도 어떠한 손실도 없이 영상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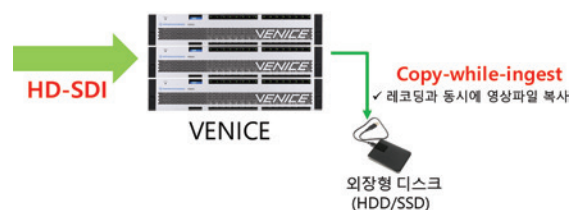


- Venice에 80개의 SDI 신호와(비동기 신호 카메라 포함) 128채널의 AES 오디오 입력
- Venice에 LTC와 하우스싱크 입력
- Venice의 Auto chunk 기능으로 1시간 단위로 자동 파일 분할
- Venice의 Copy-while-Ingest 기능을 이용하여 스튜디오에서 HQ로 레코딩중인 영상파일 copy
- HQ는 1시간 단위로 스튜디오에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MAM에 등록



고객이 Venice 워크플로우를 채택하여 얻은 장점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편집 및 후반작업을 위한 HQ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들에게 R&S Venice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참고로, 외장 디스크에 레코딩한 사본을 복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레코딩과 동시에 복사를 시작하는 Copy-While-Ingest 기능을 활용하면 사본 복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Dual destination recording을 활용한 워크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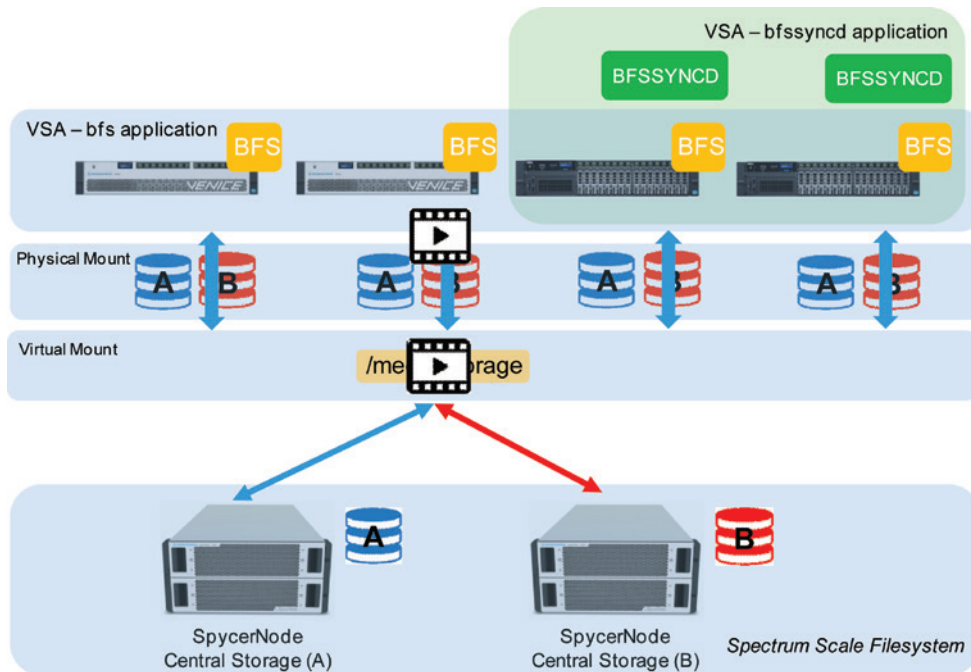
Dual destination recording 기능은 Venice의 로컬 스토리지에 원본 영상을 레코딩 하는 동시에 공유 스토리지에 사본 영상을 레코딩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같은 facility 내에서 스튜디오와 편집장비 및 후반작업 장비가 동시에 접속 가능한 공유 스토리지(SAN 또는 NAS)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권장하는 워크플로우이다.



이 워크플로우의 장점은 Venice의 로컬 스토리지에 원본 영상이 레코딩 됨과 동시에 공유스토리지에 사본 영상이 생성되기 때문에 촬영이 종료되면 그 즉시 편집 및 후반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스튜디오에서 촬영 종료 시간으로부터 편집을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미디어 이동 시간을 0(zero)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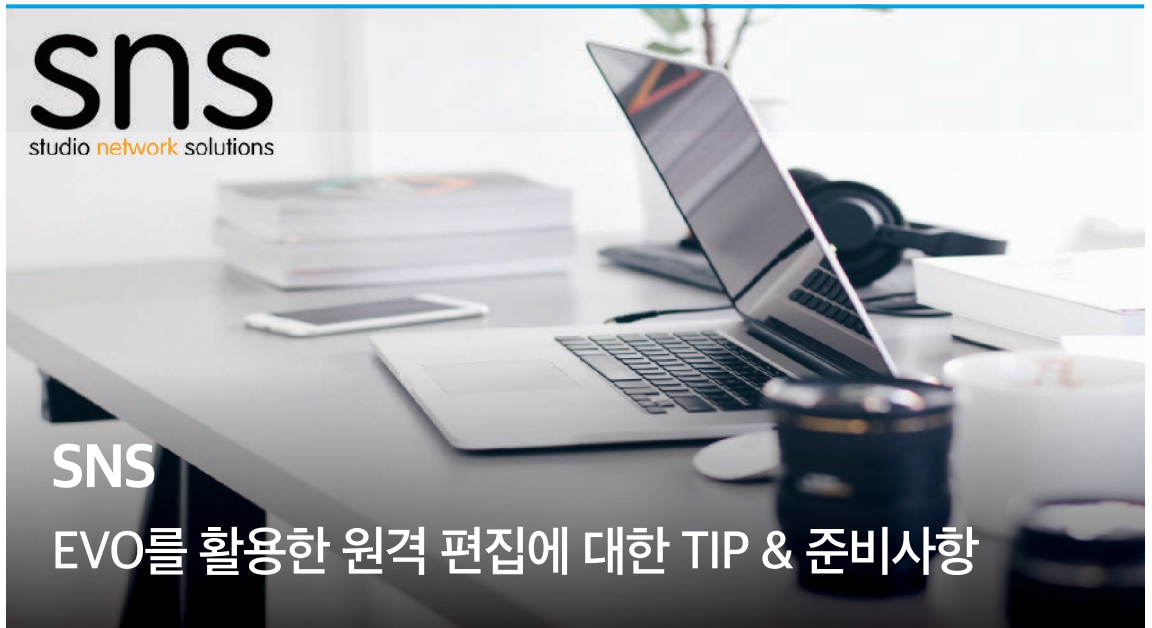
VSA를 활용한 워크플로우

R&S 사는 Venice 미디어서버 이외에도 SpycerNode라는 공유 스토리지도 같이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서버와 공유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매우 강력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중화 시스템의 명칭이 VSA(Virtual Storage Access)이다.



이 워크플로우의 장점은 어떠한 단일 장애(네트워크 손실, 서버 동작 중지, 스토리지 에러 등)에도 1frame의 손실도 없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R&S Venice는 이와 같이 매우 뛰어나고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Rohde & Schwarz 사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유용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동력의 3% 이상이 재택근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2011년에 실시한 검사 결과에 비해 1%가 상승한 것이며 2011년 이전보다 굉장히 빠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과 기술 연구의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사무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및 Slack과 같은 유명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웹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놓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직장과 집을 연결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웹 기업인 Twitter, Google 및 Skillshare 등은 감염의 위험이 없는 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원격으로 EVO에 연결

그렇다면 포스트 프로덕션은 어떨까요? 원격 편집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예측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미디어 파일은 그 사이즈 때문에 온라인 전송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한 편집자가 다른 편집자에게 영상을 전송할 때 포스트 프로덕션 워크플로우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현재의 EVO 솔루션은 이를 대비한 옵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이미 사용 중인 EVO 포스트 프로덕션 서버에 VPN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VPN은 암호화된 '터널'을 형성하여 원격 편집자가 EVO 시스템에 연결하고 프로젝트 파일 및 프록시와 함께 작업하며 집이나 세계 어디에서든지 프로덕션 제작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VPN은 연결이 암호화되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VPN과 EVO 서버를 통해 사용자는 추가 소프트웨어 작업이 없어도 마치 같은 작업실에 있는 것처럼 로컬 네트워크 미디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VPN 액세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시스템 리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작업 환경의 다른 컴퓨터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 요소는 오직 인터넷 연결 속도뿐입니다. 사용자는 EVO 및 ShareBrowser를 사용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솔루션은 TeamViewer와 같은 원격 데스크톱(화면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른 컴퓨터에서 사무실 워크 스테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 공유 솔루션은 편집자가 파일에 액세스하여 홈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유를 위한 전용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편집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연결에 의존하는 모든 작업은 지연 시간 및 연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작업자의 집에서 충분한 인터넷 속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격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워크플로우에 따라 특정한 사전 고려와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름 지정 및 파일 구성 표준

포스트 프로덕션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와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중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안 구축은 더욱 중요합니다. EVO 솔루션은 자체 ShareBrowser와 같은 MAM(Media Asset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검색, 메타 데이터 사용자 지정 및 기타 카탈로그 기능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NS 노마드(Nomad) 및 오프라인 편집

오프라인 편집은 원본 고해상도 소스 미디어 파일 대신 저해상도 프록시 파일을 사용하여 비디오 편집을 수행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더 작고 크기와 낮은 대역폭을 갖는 프록시 파일을 사용하면 편집 및 파일을 처리할 때 작업이 쉬워지며, 최종 출력 시에만 오리지널 품질과 해상도를 가진 원본 미디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SNS Nomad는 이동 중에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원격 워크플로우를 위한 유틸리티입니다. 원격과 재택근무를 위한 오프라인을 편집을 준비할 때, EVO 시스템은 이를 위한 소스 미디어 및 프록시 파일을 수집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결합되어 EVO는 미디어 데이터 자산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루트 수준에서는 이런 모든 자산이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

고 있습니다. 파일/폴더 이름 지정 규칙, 시간/날짜 표기법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의미있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많은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디어 표기 사례 중 하나는 자체적으로 프로덕션 자산에 대한 폴더 및 파일 이름 지정 규칙을 만든 'Netflix'입니다. 이 기능은 원격 워크플로우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는데, 모든 사용자가 준수하는 조직의 자산 스키마를 설정하고 구축하면 원격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지정 및 조직 표준을 지정하는 것은 미디어 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외부 미디어 자산을 공유 워크플로우로 쉽게 통합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MAM 시스템에 의한 카탈로그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지속적인 지원 및 발전하는 유틸리티

EVO는 편집자가 미디어를 저장하고 작업을 구성하여 다른 사용자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VO와 함께 VPN 또는 화면 공유 기술을 활용하면 미디어 전문가들은 원격 작업시에도 제작이 중단되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작업 형태에 맞는 원격 편집 방법을 찾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격 워크플로우와 분산 워크플로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워크플로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꾸준히 제작을 이어갈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지금 구축하세요.

